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기후재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피해 금액은 증가했지만, 이는 기상학적 강도가 아닌 경제적 가치 증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60년엔 2만 5천 달러였던 해안가 주택이 2020년에는 2,500만 달러로 상승했다. 동일한 강도의 허리케인이라도 오늘날 훨씬 더 많은 금

전적 피해를 주는 이유는 자산 가치, 인프라, 인구 밀집도 등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이지, 기후의 변화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쉽다. 폭풍이 불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탄소세, 가스레인지 금지, 내연기관 퇴출 등의 기후 규제 추진의 근거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사라진다. 공포는 정치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전략한다.

기후는 원래부터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존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의 과장과 공포 조장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냉철한 분석과 신중한 정책 선택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폭풍은 날씨가 아니라, 정치적 레버리지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heritage.org/climate/commentary/twisting-the-truth-extreme-weather-and-the-climate-narrative>